존 오웬 『죄 죽이기』(박문재 옮김, CH북스 세계기독교고전 64)

6장 죄를 죽인다는 것은 무엇인가

『죄 죽이기』 제6장, 인쇄 82~92쪽

🧭 흐름 한눈에

오웬은 앞 장들에서 죄 죽이기가 '아닌 것'을 걸러냈다. 이 장에서는 죄 죽이기가 '무엇인지'를 세 가지로 정의한다. 이 정의는 다음 장들에 나올 구체적 지침의 토대가 된다. 첫째, 죄 죽이기는 겉으로 드러난 죄가 아니라 우리를 죄로 끌어당기는 뿌리 깊은 성향을 약화시키는 일이다. 둘째, 원수를 알고 그 수법을 연구하며 날마다 공격하는 끊임없는 싸움이다. 셋째, 죄를 막는 데서 그치지 않고 끝까지 추적해 이기는 일이 지속되는 상태다. 오웬은 이것을 두 가지로 묶는다. 성령이 심으신 은혜를 키워 죄의 성향을 약하게 만드는 것, 그리고 주어진 모든 수단으로 즉시 죄에 맞서는 것이다. 이 둘이 갖춰지면 은혜 언약의 약속에 따라 양심의 평안이 온다.

📜 절별 정리

📜 1. 죄의 성향이란 무엇인가

오웬은 죄 죽이기의 첫 번째 의미를 '죄의 성향을 약화시키는 것'이라고 한다. 모든 죄악된 욕망은 마음을 계속 악으로 기울게 하는 타락한 습성, 곧 성향이다. 회심하지 않은 사람은 한 가지 욕망만 밤낮으로 좇지는 않는다. 섬기는 욕망이 여럿이고, 저마다 채워 달라고 소리치기 때문이다. 그래도 전체로 보면 그 모든 욕망은 '자기 만족'이라는 한 방향을 향한다. 신자 안의 특정한 욕망도 늘 생각을 들쑤시지는 않을 수 있다. 하지만 그 실체는 의지와 감정을 특정한 죄로 끌고 가는 강하고 습관적인 경향이다. 오웬은 이 성향이 선한 본성적 성향과 다르다고 강조한다. 본성적 성향은 영혼을 부드럽게 이끌지만, 죄의 성향은 영혼을 폭력적으로 밀어붙인다. 그래서

약화시키지 않으면 죄가 잉태되어 끈질기게 소동을 벌이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 되어 버린다.

1. 죄 죽이기 1번: 죄의 성향을 약하게 하기
2. 욕망은 하나의 '습관적 끌림'이다
3. 여러 욕망도 결국 자기 만족을 향한다
4. 죄의 성향은 부드럽지 않고 폭력적이다
5. 약화시키지 않으면 죄가 계속 잉태된다

> **창세기 6:5**
> 죄가 죽지 않은 마음은 생각의 계획이 항상 악하다는 증거
>
>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 **로마서 13:14**
> 마음이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기운다는 표현
>
>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 **베드로전서 2:11**
> 정욕이 영혼을 거슬러 싸운다, 곧 죄의 성향은 폭력적이다
>
>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 **로마서 7:23**
> 죄가 영혼을 포로로 사로잡아 제 뜻대로 끌고 간다
>
>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 **야고보서 1:14-15**

> [14]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15]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죄를 죽이는 것은 죄의 성향을 약화시키는 것이다.”

📜 2. 첫째 제한: 같은 욕망도 사람마다 힘이 다르다

오웬은 여기서 한 가지 '주의사항'을 붙인다. 모든 욕망은 본성상 우리를 죄로 몰아가지만, 그 세기는 똑같지 않다. 어떤 욕망이 자주 쓰이고 강화되면 그 사람 안의 다른 욕망보다, 그리고 다른 사람 안의 같은 욕망보다 훨씬 강해진다. 그 사람의 타고난 기질이나 삶의 환경, 기회가 그 욕망과 잘 맞을 수 있다. 사탄이 온갖 술수로 그 욕망을 붙잡아 키울 수도 있다. 특히 욕망은 자기와 잘 맞는 유혹을 만나면 전에 없던 활력과 광포함을 얻는다. 이렇게 강해진 욕망은 뜨거운 증기처럼 지성을 가린다. 그러면 그 사람은 전과 똑같은 것을 알고 있어도, 그 지식이 의지를 전혀 움직이지 못한다. 결국 부패한 감정이 마음대로 활개 친다.

1. 욕망의 세기는 사람·때마다 다르다
2. 자주 쓴 욕망일수록 강해진다
3. 기질·환경·기회·사탄이 키운다
4. 맞춤형 유혹이 욕망에 새 힘을 준다
5. 강한 욕망은 '아는 것'을 무력하게 만든다

> **로마서 7:23**
> 강해진 욕망이 지성과 의지를 사로잡는 과정의 배경 본문(오웬은 이 과정을 다른 책에서 자세히 다루겠다고 말함)
>
>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 3. 둘째 제한: 시끄러운 죄와 조용한 죄

두 번째 제한은 이것이다. 어떤 욕망은 격렬하게 활동해서 쉽게 드러나고, 어떤 욕망은 조용하다. 바울은 음행을 '자기 몸에 짓는 죄'라고 하며 다른 죄와 구별했다. 그래서 음행의 움직임은 다른 죄보다 잘 보인다. 반면 세상을 사랑하는 죄는 음행 못지않게 사람을 지배하면서도 큰 소동을 일으키지 않는다. 오웬의 경고가 여기에 있다. 조용한 죄에 지배받는 사람도 시끄러운 죄에 비명을 지르는 사람만큼 욕망의 지배 아래 있다. 그런데도 그는 자기 눈에도, 남의 눈에도 이미 죄를 죽인 사람처럼 보일 수 있다. 욕망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소란을 피우지 않을 뿐이다. 타고난 기질이 차분한 사람에게서 이런 모습을 자주 본다. 그들의 기질이 드러나기 쉬운 욕망과 잘 맞지 않기 때문이다.

1. 음행 같은 죄는 소란스러워 잘 보인다
2. 세상 사랑 같은 죄는 조용히 지배한다
3. 조용하다고 죽은 것이 아니다
4. 차분한 기질을 거룩함으로 착각하기 쉽다

> **고린도전서 6:18**
> 음행은 몸에 짓는 죄라서 그 움직임이 특히 잘 드러난다
>
>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 **요한일서 2:16**
> 육신의 정욕·안목의 정욕·이생의 자랑, 곧 세상 사랑도 같은 지배력을 가진다(4절 인용을 여기 배경으로 연결)
>
>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 4. 십자가에 못 박든 양하시거라 — 뿌리와 열매

오웬은 성경이 죄의 성향을 약화시키는 일을 '십자가에 못 박음'이라고 부른다고 설명한다. 육체에 힘을 공급하는 피와 원기를 빼내는 일이다. 십자가에 달린 사람은 처음에 온 힘으로 소리치며 발버둥 친다. 하지만 피가 빠질수록 움직임도 소리도 잦아들다가 결국 조용해진다. 욕망도 묶어 두면 처음엔 필사적으로 저항한다. 그러나 피와 원기가 빠지면 마음에서 거의 들리지 않게 된다. 죽어 가는 욕망의 마지막 비명은 대단한 힘처럼 보인다. 그래도 그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금방 끝난다. 이 원리는 음란이나 세상 욕심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지성과 의지까지 포함하는 '육체' 전체에 해당한다. 그리고 욕망이 악으로 몰아가든 선을 방해하든, 할 일은 그 힘을 약화시키는 것이다. 오웬은 나쁜 나무 비유로 마무리한다. 뿌리가 살아 있는 한 쓴 열매를 아무리 따 내도 다시 열린다. 겉으로 터진 죄와만 씨름하고 그 뿌리는 찾아보지도 않는 사람은 거의 진전이 없다.

1. 죄 죽이기는 죄의 피와 원기를 빼는 일
2. 죽어 가는 욕망은 마지막에 더 크게 운다
3. 요구를 거절하면 발악은 곧 끝난다
4. '육체'에는 하나님을 거스르는 생각도 포함
5. 열매만 따면 실패, 뿌리를 쳐야 한다

> **갈라디아서 5:24**
> 육체와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음, 곧 성향 약화의 성경적 이름
>
>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 **고린도후서 4:16**
> 사망의 몸이 날마다 쇠약해지는 점진적 과정
>
>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 **로마서 6:6**
> 죄의 몸을 죽여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함(재료에는 '로마서 7장 6절'로 적혔으나 인용된 말씀은 로마서 6:6)

>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 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 **요한일서 2:16**
> 육신의 정욕·안목의 정욕·이생의 자랑도 약화 대상에 포함
>
>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 5. 싸움 ① — 원수를 원수로 알아보기

죄 죽이기의 두 번째 의미는 '죄에 맞서 끊임없이 싸우는 것'이다. 죄가 왕성할 때 영혼은 고개를 들고 맞서기 어렵다. 다윗처럼 탄식하고 신음할 뿐 죄를 몰아내지 못한다. 그래서 싸움에는 갖춰야 할 것이 있다. 그 첫째는 내 안에 진짜 원수가 있다는 것, 모든 수단을 써서 반드시 죽여야 할 원수라는 것을 아는 일이다. 이 싸움은 영원한 운명이 걸린 위험한 싸움이다. 그런데 자기 욕망을 '잠깐 지나가는 것'쯤으로 가볍게 여긴다면, 그것 자체가 죄가 죽지 않았다는 증거다. 그런 사람은 죽이는 과정에 들어서지도 않은 것이다. 오웬이 두려워하는 것은 많은 사람이 가장 큰 원수를 품에 안고 다니면서도 그 사실을 모른다는 점이다. 그들은 스스로 의롭다 여기며 책망과 훈계를 참지 못한다.

1. 죄 죽이기 2번: 끊임없는 싸움
2. 먼저 '내 안에 원수가 있다'를 인정하라
3. 이 싸움에는 영원한 운명이 걸려 있다
4. 죄를 가볍게 여기는 것이 위험 신호다
5. 책망을 못 견디면 원수를 품은 것이다

> **시편 40:12**
> 죄가 덮치면 머리도 들 수 없다, 곧 왕성한 죄 앞의 무력함

열왕기상 8:38

각 사람이 자기 마음의 재앙을 깨닫는 것이 싸움의 출발점

>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에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역대하 16:10

자신을 의롭게 여기는 사람은 책망에 분노한다(아사 왕의 예)

>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 때에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 6. 싸움 ②③ — 원수의 수법을 연구하고 날마다 쳐라

둘째로 갖출 것은 원수가 다니는 길, 쓰는 술수, 가진 이점, 노리는 기회를 알아내려고 애쓰는 일이다. 실제 전쟁에서도 적의 계획과 목적, 지난번에 어떻게 우리를 이겼는지를 살핀다. 이 과정을 건너뛰면 참패한다. 죄를 진정으로 죽이려는 사람도 죄가 날뛸 때만이 아니라 잠잠할 때에도 묻는다. “이게 내 원수다. 이 방법으로, 이런 이점을 써서 나를 이겼다. 막지 않으면 또 이길 것이다.” 오웬은 이것을 영적 지혜의 가장 탁월한 부분이라고 부른다. 죄의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어떤 계기와 핑계와 그럴듯한 논리를 쓰는지 꿰뚫어 보는 것이다. 그러면 죄의 은밀한 움직임에 “네가 옛날부터 써먹던 방식이구나” 하고 말할 수 있다. 셋째로 갖출 것은, 죄를 괴롭히고 죽이는 모든 수단으로 날마다 죄를 공격하는 일이 싸움의 핵심임을 아는 것이다. 죄를 죽이기로 결심한 사람은 욕망이 조용하다고 해서 다 죽였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날마다 새 상처를 낸다. 이렇게 싸우는 영혼은 최상의 상태로 싸우고 있고, 죄는 그 칼 아래서 죽어 가고 있다.

1. 죄의 길·술수·기회를 연구하라
2. 죄가 잠잠할 때도 복기하라
3. 죄의 핑계와 논리를 간파하는 게 지혜다

시편 51:3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곧 죄를 늘 직시하는 태도

> 무릇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골로새서 3:5

땅의 지체(음란·부정·사욕·악한 정욕·탐심)를 계속 죽이라는 명령

>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죄를 죽이는 것은 죄에 맞서서 끊임없이 싸우는 것이다."

📜 7. 성공 — 막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이기는 것

세 번째 의미는 죄를 죽이는 데 '자주, 지속적으로 성공하는 것'이다. 오웬이 말하는 성공은 죄가 밖으로 터져 나오지 못하게 막는 정도가 아니다. 죄와 맞붙어 이기고, 끝까지 추적해 정복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보자. 마음속에서 죄가 육체를 먹일 생각을 만들어 유혹한다. 그 순간 죄를 알아차린다. 그 죄를 하나님의 법과 그리스도의 사랑 앞으로 끌고 간다. 거기서 정죄하고 처형까지 마친다. 이것이 성공이다. 이런 성공이 쌓이면 욕망의 뿌리가 약해진다. 그러면 욕망이 더는 신앙의 의무를 방해하거나 평안을 깨뜨리지 못한다. 영혼은 고요한 가운데 죄를 찾아내 이기는 일을 꾸준히 해낸다. 이때 죄는 상당히 죽은 것이다. 그 사람은 남아 있는 죄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살아간다.

1. 죄 죽이기 3번: 지속적인 승리
2. 막기만 하는 건 아직 성공이 아니다
3. 즉시 알아차리고 법과 사랑 앞에 세우라
4. 정죄하고 처형까지 마쳐야 승리다

> **(직접 인용 없음)**
> 오웬은 이 절에서 구절을 따로 인용하지 않는다. 앞에서 인용한 갈라디아서 5:24와 골로새서 3:5의 '죽이라'는 명령이 이 절의 배경이다

📜 8. 정리 — 은혜를 키우고, 모든 수단으로 즉시 싸워라

오웬은 죄 죽이기를 두 가지로 요약한다. 여기서 죽이려는 대상은 특정한 욕망을 통해 드러나는 본성 전체의 부패다. 첫째, 토대는 우리 안에 심어진 은혜의 원리를 소중히 품는 것이다. 이 은혜가 죄와 정면으로 맞서 죄의 성향을 약화시킨다. 겸손이 자라면 교만이 약해진다. 인내가 자라면 혈기가 약해진다. 마음의 순결과 양심이 자라면 음행이 약해진다. 하늘에 마음을 두면 세상 사랑이 약해진다. 이 모두는 성령의 은혜이며, 대상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뿐 하나의 은혜다. 죄의 여러 욕망이 결국 하나의 부패한 본성인 것과 마찬가지다. 둘째, 성령 곧 새 사람이 주어진 모든 방법과 수단과 원군을 써서 즉각적이고 기꺼이 죄에 맞서야 한다. 이 두 가지가 갖춰지면 성공의 수준이 점점 높아진다. 뿌리가 아주 깊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욕망의 저항을 더는 거의 느끼지 못할 만큼 정복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때 은혜 언약의 약속에 따라 양심이 평안을 얻는다.

1. 토대: 성령이 심은 은혜를 키우기
2. 겸손↔교만, 인내↔혈기로 맞선다
3. 은혜도 죄도 뿌리는 각각 하나다
4. 방법: 모든 수단으로 즉시 싸우기
5. 결과: 언약의 약속대로 양심의 평안

> **(직접 인용 없음)**
> 오웬은 이 절에서 구절을 따로 인용하지 않는다. 성령의 은혜와 '은혜 언약의 약속'을 근거로 들 뿐이다

⚖️ 오해와 반론

📖 용어

죄 죽이기(mortification)
내 안의 죄가 가진 힘과 끌림을 성령의 도우심으로 계속 약화시키고 이겨 나가는 일.

죄악된 욕망(정욕, lust)
특정한 죄로 마음을 끌어당기는 내 안의 강한 바람. 성적인 것만 가리키지 않는다.

성향(습성)
한 번의 행동이 아니라 마음이 늘 그쪽으로 기울어 있는 뿌리 깊은 경향.

내재하는 죄(indwelling sin)
거듭난 신자 안에도 여전히 남아 활동하는 죄의 세력.

육체(육신)
몸의 욕구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스르는 우리의 본성적 생각과 의지 전체.

옛 사람 / 새 사람
죄에 물든 옛 본성과, 성령으로 새로 지어진 신자의 새 본성.

은혜의 원리
성령이 신자 안에 심으신, 겸손·인내·순결 같은 거룩한 성향의 근원.

은혜 언약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백성에게 은혜로 약속하신 관계와 약속들.

양심의 평안
죄책과 불안에서 벗어나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고요한 상태.

• 점검 질문

💬 청년의 삶으로

✅ 이 장의 결론

- 죄 죽이기는 겉으로 드러난 죄를 막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 죄로 끄는 뿌리 깊은 성향을 약화시키는 일이다.
- 그러려면 죄를 진짜 원수로 인정하고, 그 수법을 연구하고, 잠잠할 때에도 날마다 공격해야 한다.
- 성공이란 죄를 알아차려 하나님의 법과 그리스도의 사랑 앞에 세우고 끝까지 처형하는 일이 꾸준히 이어지는 것이다.
- 그 토대는 성령이 심으신 은혜를 키우는 것이다. 겸손이 교만을, 인내가 혈기를 약하게 한다.
- 이렇게 싸우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 언약의 약속대로 양심의 평안을 주신다.

🎬 이 장을 쓰는 편

- 죄 죽이기 6편 · 참는 것과 죽이는 것은 달라 · 죄 죽이기란 무엇인가

빛다방 학습 노트 · 존 오웬 『죄 죽이기』(CH북스, 박문재 옮김)의 논증 구조를 우리 말로 정리한 것입니다(번역서 원문 미전재). 성경 장절은 개역개정입니다. 전문 텍스트판과 서재 정리본은 pdf.quritan.com 에 있습니다.